



|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h2>보 도 자 료</h2>   | 작성과 | 정보자원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|
|  | <p style="color: red;">2019년 5월 16일(목) 조간<br/>(5. 15. 12:00 이후)부터<br/>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 담당자 | 과 장 이상민<br>사무관 김석태           |
|   |  | 연락처 | 044-205-2802<br>044-205-2815 |

## 개방형 OS 도입 추진, 정부 PC 환경에 새로운 변화 예고

### - 행안부, 개방형OS 시범 운영 후 전 행정기관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 -

- 윈도우(Windows) 일변도의 정부 PC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PC에 개방형 OS(운영체제)를 단계적으로 도입·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개방형OS는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(Linux)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PC 운영체제(OS)들을 지칭한다.
    - ※ 개방형 OS 사례 : 구름 OS, 우분투(Ubuntu), 하모니카 OS 등
- 현재 행정·공공기관의 PC는 특정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**중속 우려**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.
  - 특히,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정책에 따라 **2020년 1월부터 윈도우 7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이 종료될** 예정으로, 이후의 보안취약점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하게 되어 현재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긴급 PC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.
    - ※ 전 행정·공공 기관의 윈도우7 기반 PC 교체 비용은 약 7.8천억 예상

- 그 간, 정부는 개방형 OS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해 왔으나, 다수 웹사이트와 각종 SW가 윈도우 환경에서만 동작하고 **개방형 OS와의 호환성**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.
  - 그러나, 최근 플러그인 제거 등 웹 호환성 확보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, 개방형 OS 자체의 성능도 개선되고 있어 **개방형 OS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**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.
- 이에, 행안부는 개방형 OS를 행정기관에 단계적으로 도입·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  - 먼저, 적용이 보다 용이한 인터넷망 PC에의 개방형 OS 도입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호환성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.
    - ※ 행정기관은 인터넷망-업무망 망분리 보안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인터넷망 PC와 업무망 PC를 운용 중
    - 이에 따라, **금년에는** 각종 보안SW, 주요 웹사이트, 주변기기 등에 대해 개방형 OS와의 **호환성 검증 및 개선 작업**을 추진하고, **'20년에 행안부 시범 운영**을 통해 안정성을 최종 검증한 후, **'21년부터 전 행정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      - ※ 추진 일정 : 기능 검증 및 부처간 협업('19년)→시범운영('20년)→부처 확산('21년~)
  - 중장기적으로는, 다양한 SW가 설치·운영되고 있는 **업무망 PC로 개방형 OS를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    - 이를 위해, 워드프로그램 등 각종 상용SW들을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웹 오피스(Web Office) 기반으로 전환하고, 전자결재·회계 등 내부업무용 전자정부시스템의 호환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또한, 공공분야가 개방형OS 도입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통해 개방형 OS 중심의 SW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.
  - 공공기관이 보다 쉽게 개방형OS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 우수사례 발굴, 개방형 OS 설명회 등을 통해 사용자 인식과 문화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민·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SW기업들의 개방형 OS 호환성 확보를 촉진시키기로 하였다.
-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“개방형 OS의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, 특정 기업에의 종속성 해소가 가능하다.”라며, “개방형 OS가 조기에 확산되고 새로운 SW 생태계 조성과 관련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및 SW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